

격 려 사

불교예술은 불교의 교학적 사상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배움의 근기에 상관없이 누구든 종교적 환희와 발심을 내도록 하는 포교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선서화 역시 우리에게 글자 한 획, 그림 한 장으로 해탈과 깨달음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각스님은 산사에서 수행생활을 하며 산, 물, 나무, 해, 달, 새와 같은 자연의 도반들을 담백하게 화폭에 담아 참된 마음인 무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서화로 30년 여 년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홍보하였고, 전시회 수익금을 백혈병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실업자가족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내놓으며 중생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에는 자성과 쇄신을 통해 정법을 구현하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조계종단이 진행하고 있는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 가운데 문화기금 모금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면서 종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8·15 광복 66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행복한 미소’ 선서화 특별기획전은 일제강점기 억압에서 벗어난 것을 경축하는 뜻 깊은 전시로써 참된 광복의 의미와 언제나 민족과 함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MBC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김수병 사장님과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성각스님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서화를 감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2011)년 8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